제10강, 해체의 뒤안길 2-2
－□해체□에서 □자유□로

(1교시)

3.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도 아닌 곳에서－새로운 자아-세계의 □이야기□를 위해

다음의 이야기는 ?산목山木?편에 나오는 것으로써, 이제까지의 이야기의 일면을 잘 드러내주는 장자 후학(後學)의 작품이다. 대화가 전개되는 상황과 화자의 심리를 생각하며 읽어본다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시남(市南)에 사는 의료(宜僚)라 하는 선생이 노(魯) 나라의 제후를 만났는데, 노 나라의 제후가 근심스러운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시남의 선생이 물었다. □군주께서는 근심스런 얼굴을 하고 계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노 나라의 제후가 말하였다. □나는 고대의 성왕들께서 전한 도(道)를 배우고, 노 나라의 옛 군주들의 유업을 닦아 왔습니다. 나는 죽은 이들의 혼령을 존중하였고 어진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친히 실행하면서 잠시도 이로부터 벗어나거나 방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환란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근심하는 까닭입니다.□

시남 선생이 말하였다. □군주께서 환란을 없애는 방법이 너무 얕은 것입니다! 저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여우나 우아한 무늬를 가진 표범은 산 깊은 숲 속에 살며 바위 동굴에 웅크리고 쉬니 □고요하다□고 합니다. 밤에만 다니고 낮에는 가만히 있으니 □조심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굶주리고 갈증이 나도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강과 산을 따라 먼 곳에서 먹이를 구하니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물이나 덫에 걸리는 환란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찌 저들에게 죄가 있어서이겠습니까? 저들이 지닌 가죽이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지요. 이제 노 나라야말로 오로지 군주의 가죽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컨대 군주께서는 일신의 욕망을 벗어 던지고 가죽을 없애 버리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닦고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 없는 들에서 노니시기를 바랍니다. 저 남쪽 월 나라에는 어떤 마을이 있는 데 그 이름을 □덕을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 마을의 백성들은 어리숙하면서 소박하고 사사로움이 적고 욕심이 작습니다. 지을 줄은 알면서 숨길 줄을 모르고, 줄 줄을 알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의식을 차릴 곳을 모릅니다.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일정한 격식 없이 옮겨 다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저 대도(大道)를 따라 거닙니다. 살아서는 삶을 즐기고, 죽어서는 편안히 묻힙니다. 원컨대 군주께서는 나라를 버리고 세속의 번잡한 일을 내던지고, 도(道)가 인도하는 대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노 나라 군주가 말하였다. □나에겐 그 길이 멀고도 험하겠습니다. 또한 가는 길에는 강도 있고 산도 있는데, 나에겐 배도 수레도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시남의 선생이 말하였다. □군주께서는 □거만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군주의 수레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군주가 말하였다. □나에겐 그 길이 아득히 먼데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누구와 더불어 동행하겠습니까? 나에게는 비축해 놓은

곡식이 없어 가다가 허기져도 먹을 것이 없을 터인데 어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시남 선생이 말하였다. □주군께서 비용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가지신다면 비록 비축해 둔 양식이 없다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주군께서 강기슭을 지나 바다 한 가운데에 떠 있으면 멀리까지 바라다보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가도 그것이 끝나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주군을 전송하던 사람들이 모두 강기슭에서 돌아가면 주군께서는 이제서야 비로소 멀리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늘 이런 일 저런 일에 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은 이런 저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 임금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애써 일하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제가 원컨대 이런 일 저런 일로 주군을 매이게 하는 것을 내던져 버리고 주군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홀로 도와 더불어 □대막의 나라□에서 노니시기 바랍니다. 막 배를 타고서 강을 건너 가는데, 어떤 빈 배가 와서 제 배에 부딪힌다면 아무리 속이 좁은 사람이라해도 화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으면 소리를 쳐서 멀리 떨어져 돌아가라고 할 것입니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않고 두 번 소리쳐도 듣지 않고 세 번째로 소리를 치게 되면 반드시 욕을 해 가며 소리지를 것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것은 앞의 경우에는 빈 배였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비우고 세상에 노닌다면 누가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 옳음 속에 감춰져있는 권력의 본질을 부정.
⇒ 다양성의 존중.

1. 기원전 3세기를 전후로 한 사상계의 변화에 대한 ?맹자?의 증언

: 『맹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은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이기주의 대 공리주의의 극단적 대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옴. 더욱 중요한 것은 □爲我□라는 언설 자체. □我□(자아)가 주장의 핵심으로 등장.

1) □양자는 □나 자신만을 위한다□는 주장을 하여, 자기의 털 하나를 뽑아 온 천하가 이롭게 된다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楊子取爲我, 拔一毛而利天下不爲也. ?孟子? 13:26)

2) □양주는 □나를 위하여□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군주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묵자의 □두루 사랑하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군주도 부정하였으니 이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주장이다.□(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孟子』 6:9)

(2교시)

2. 『회남자』의 보다 객관적인 주장

: 그라함(A. C. Graham)에 따르면 양주(楊朱)는 중국 사상사에서 최초로 □性□을 철학적 주제로 부상시킨 사상가, 출사(出仕)라는 사(士) 계층에게 부여된 엄청난 도덕적 압력으로부터 해방－?맹자?의 無君이란 말을 연상할 것－시킨 위인

생을 보전하고 천성을 보존하며 외물 때문에 몸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주장은 양주가 수립한 것인데, 맹자가 비난했다.(全性[生]保眞, 不以物累形, 楊子之所立也, 而孟子非之. ?淮南子? ?氾論訓?)

그라함은 이 구절에서 全性.保眞.不以物累形을 양주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간주함: □性□이란 하늘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부여해 준 타고난 능력, □眞□이란 문화적인 것 인위적인 것에 의해 오염되기 전의 사람의 지닌 자연스러운 성향, □不以物累形□이란 사회적인 성공[出仕]보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 全性: 사람이 타고난 양을 제대로 살 수 있느냐
* 保眞: 내가 타고난 본래의 것이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 不以物累形: 벼슬살이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3. 로스(Harold D. Roth)와 하퍼(Donald Harper)의 견해

: 전국 시대 당시의 자연 철학과 비전적 사상(occult thought), 즉 당시의 세계관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諸子書보다 새롭게 출토된 문헌에 의존해야 함. 이러한 사상 경향은 샤머니즘적 요소와 이른바 方術家의 융합의 결과로서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齊의 稷下(345-280 B.C.), 秦代 呂不韋의 門客(250-239 B.C.), 淮南王 劉安의 方士(150-122)에서의 사상의 종합주의적 사상 경향에서 드러남 ☞ 이후 자아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됨.

4. 노장의 사상사적 여로

1) 신체(形, physical body) 또는 그 부분의 부상: □四肢□ □耳目□ □皮膚□ □筋骨□과 같은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 精/氣/神은 形이란 그릇에 담기는 내용 ☞ 눈빛.낯빛 등으로 드러남 → 모호한 心 개념에서 생리적 心 개념의 표명 ☞ 양생/수양의 대상으로서의 心

2) 心的 自我의 현현 과정: 心之心 → 意 → 形 → 言 → 使 → 治/亂 ☞ 따라서 心의 문제는 治의 핵심이자 근원으로 등장, 신체적 생명 유지의 본성을 和-生 : 不和-死로 보는 세계관의 반영 ☞ 정치적 질서의 모색에도 가장 중요한 시사

3) 역사적 역행 : 신체의 君主로서의 心과 官으로서의 다른 부분들 ☞ 자아에서 心의 우선성: 이 점은 같은 직하 계열이지만 유학자인 荀子에게서도 명확하게/동일하게 표현된다 ☞ 『荀子』「天論」: □귀, 눈, 코, 입, 몸뚱이는 각각 외물과의 접촉을 통해 그 변별력을 발휘하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일컬어 천관(天官)이라 한다. 마음은 가운데 빈 곳에 거하면서 이 다섯 천관을 다스린다. 이것을 일컬어 천군(天君)이라 한다.□(耳目鼻口形能, 各有接而不能也, 夫是之謂天官. 心居中虛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

4) 마음의 가장 근원적/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용어법: 道德, 靜, 思

5) 신체적 자아 내부의 다양한 욕망(갈등/불화의 원인)에 대한 인정과 이를 조절하기 위 한 기제의 마련 ☞ 하지만 이러한 和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 힘과 가능성은 心에 본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 □다스리는 것도 마음이요, 편안해지는 것도 마음이로다.□(治之者心也, 安之者心也.) ☞ 하나(一)에 대한 강조, 道